**보도자료 09**

****

**“가을 되면 꼭 봐야 하는 전어 같은 영화!”**

**김태용 감독과 함께한 스페셜 GV 화제!**

**제작 비하인드와 관객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눈길!**

**2011년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가을 로맨스 명작으로 사랑받아온 <만추>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 <만추 리마스터링>이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스페셜 GV를 성황리에 마치며 제작 비하인드와 관객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눈길을 끈다.**

[제작: 빅뱅컨텐츠㈜ | 제공:씨네라인 월드㈜ | 배급: ㈜에이썸 픽쳐스 |감독: 김태용 | 출연: 현빈, 탕웨이 외 | 개봉: 2023년 11월 8일]

**“탕웨이 씨의 노래가 한국 관객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”**

**<만추 리마스터링>에 특별히 삽입된 엔딩곡 비하인드!**

**12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본 김태용 감독의 생생한 소감 눈길!**

** **

**감옥에서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얻은 여자 '애나'(탕웨이)와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'훈'(현빈)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그린 영화 <만추>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 <만추 리마스터링>**이 지난 11월 10일(금)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김태용 감독과 함께 스페셜 GV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제작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<만추>에 대한 관객들의 이야기로 이목을 끈다.

<만추 리마스터링> 상영이 끝난 직후 진행된 스페셜 GV에서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맡은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은 **“영화를 보며 세월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저기에 있는 새로운 영화처럼 느껴졌다”**며 영화의 작품성에 대한 호평으로 이번 GV의 포문을 열었다. 이어 김태용 감독은 자신도 2011년 개봉 이후 오랜만에 영화를 본 소감을 전하며 창작자로서 작품을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과 지금 와 닿는 장면의 느낌이 다르다고 밝혀 작품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곱씹게 했다. 특히 이번 <만추 리마스터링>에 특별히 삽입된 ‘만추’ 곡에 대해 **“중국어이기에 엔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리마스터링 버전에서는 탕웨이 씨 본인의 목소리로만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게 한국 관객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”**고 전해 다른 언어이지만 ‘애나’의 감정을 담아낸 탕웨이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영화를 다 본 후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.

또한 김태용 감독은 **“시애틀은 내내 안개가 끼고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작업했지만 막상 가보니 안개가 없었다”**고 전하며 웃음을 자아낸데 이어 **“안개라는 컨셉을 매일 유지해야 했기에 한국에 돌아와 CG 작업을 많이 했다”**며 환상을 깨서 죄송하다는 말로 제작 당시 <만추>의 아름다운 영상미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혔다.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객은 **“개봉 당시 엄마가 <만추>를 본 후 초등학생인 저에게 어른이 되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는 추천에 오늘 보러 왔다”**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. 여기에 다른 관객은 **“개봉 당시 20번 정도 봤고 매년 가을 되면 꼭 봐야하는 전어 같은 영화”**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 이처럼 <만추 리마스터링>은 처음 보는 관객들에게도, 다시 보는 관객들에게도 이 가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극장가로 이끌고 있다.

마지막으로 김태용 감독은 **“극장에서 관객이 포착할 수 있는 순간들을 고민하며 섬세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. 다시 극장에서 보면서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”**며 12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<만추 리마스터링>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를 전했다. 이어 GV 이후 퇴장로에서도 관객들의 열띤 요청을 일일이 맞아주며 마치 사인회를 방불케 한 현장으로 눈길을 끌며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간직한 작품임을 느끼게했다.

**김태용 감독과 함께 스페셜 GV를 개최해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영화 <만추 리마스터링>은 전국 CGV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.**

**영 화 정 보**

**제목** 만추 리마스터링

**제작** 빅뱅컨텐츠㈜

**제공** 씨네라인 월드㈜

**배급** ㈜에이썸 픽쳐스

**감독** 김태용

**출연**      현빈, 탕웨이 외

**개봉**     2023년 11월 8일

**관람등급** 15세이상관람가

**러닝타임** 114분

**시놉시스**

수인번호 2537번 애나. 7년째 수감 중,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의 휴가가 허락된다.

장례식에 가기 위해 탄 시애틀행 버스, 쫓기듯 차에 탄 훈이 차비를 빌린다.

사랑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그는,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.

**“나랑 만나서 즐겁지 않은 손님은 처음이니까, 할인해 줄게요. 오늘 하루.”**

훈은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며 억지로 시계를 채워주지만 애나는 무뚝뚝하게 돌아선다. 7년 만에

만난 가족도 시애틀의 거리도, 자기만 빼놓고 모든 것이 변해 버린 것 같아 낯설기만 한 애나.

돌아가 버릴까? 발길을 돌린 터미널에서 훈을 다시 만난다. 그리고 장난처럼 시작된 둘의 하루.

시애틀을 잘 아는 척 안내하는 훈과 함께, 애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.

**“2537번,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…”**

이름도 몰랐던 애나와 훈. 호기심이던 훈의 눈빛이 진지해지고

표정 없던 애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 오를 때쯤,

누군가 훈을 찾아 오고 애나가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는데...